

“理想的인 建築士憲章을 期待하며”

□生活信條로서의 憲章必要

人間은 누구나 그 時代 그 環境 속에서 항상 그때 그순간이 미숙하며 過渡期的이라는 생각을 갖게되고 또한 그렇게 여기곤 한다.

미숙하거나 과도기적인 개념이 곧 그시대 그 時間帶의 表像이고 그러한 순간들이 계속 이어져 내려온 것의 合成이 오늘 우리의 現實인 것이다.

오늘날을 생각해 볼 때, 내일의 복지사회, 정의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過渡期的의 준비단계인 점을 감안할 때 나와 우리의 주변 환경이 큰 문제가 되는 것이며 이를 어떻게 슬기롭고 참되게 오늘의 문제와 미완성의 사건들을 좀더 나은 理想的인 方向으로 指向할 것인가를 깊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建築法과 建築士法이 發効된 지도 벌써 20여년이 가까와지고 있어, 인간으로 치면 青年期에 접어든 셈이다. 따라서 왕성한 情熱과 意慾, 폭넓은 지식과 전문적 武器의 비축이 必要하며 어떻게 未來指向을 할 것이며 또한 社會에 대한 奉仕와 國家나 愛國心에 대한 것은 과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생각할 때 곧바로 연상되는 것이 理想的인 建築士像을 위한 建築士憲章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바로 우리 建築士들의 生活指標요, 國家社會에 대한 우리의 生活信條이며 規範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 하루속히 建築士憲章을 성문화하기 위한 作業을 위해 관련人事들의 지혜를 모아야 할 줄 안다.

물론 士法의 目的과 業務의 내용에 일부 明示가 되어 있으나 오늘의 時点에서 再確認하고 定立하여 精神의 指標로 삼고자 하는 뜻에서 憲章制

정의 必要性을 주장하는 것이다.

□새로운 추세에 앞장서야

韓國의 실정을 거슬러올라가 생각해 보면 60년대 하반기에 움트기 시작한 工業化의 싹이 70년대 하반기까지 계속 성장하여 우리 歷史上 유례가 없는 급진적인 성장을 한 時期였으나 차츰 70년대 막바지 단계에서부터 80년대에 접어들어서는 國內뿐만 아니라 國際的인 경향은 脫產業化, 脫工業化의 時代로 접어드는 추세로 재정비되고 있는 실정이며 急成長보다는 內實을 기하고 정비·정돈을 하는 時期인 것이다.

쌓아온 經驗과 기술蓄積分을 情報技術로 정리비축하여 새로운 情報技術事業으로 轉換해야할 시기인 것이다.

우리 주변을 돌아봐도 大型 建設會社가 엔지니어링化로 많은 特殊分野로 擴大해 가고 있는 實情으로 建築의 藝術性에까지 문제가 되기 쉬운 것이라고 筆者는 생각하며, 아울러 建築家라는 권위만을 가지고 안일하게 座視할 수 있는 時期는 이미 지나간 것 같으며, 우리 建築士가 確固不動한 자리를 굳힐 수 있는 길과 方案을 우리 스스로가 개척하기 위한 努力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筆者가 몇년전 外國여행에서 느낀 것 가운데 우리나라는 山水가 어느 나라 못지않게 수려하며 특히 서울의 경우는 都市를 둘러싼 산의 배경이 다른 나라 어느 都市에서도 볼 수 없는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좋은 自然條件으로 산뿐만 아니라 漢江또한 천혜의 조건 가운데 하나인 것이다,

그러나 고가도로를 타거나 거리를

걸을 때는 차라리 먼 산을 바라보게 되며, 그러한 편이 훨씬 눈과 마음을 맑게 해주기 때문이다. 건축가의 책임을 항상 절감하면서 보이지 않는次元까지도 생각하고 신경을 써야 함에도 이 보이는次元의 創造者의 責任을 새삼스럽게 反省해 본다.

이제 88년도의 大祝祭를 대비하여, 外國의 경우 특히 프랑스의 세느江에서 夜間船遊 때 배에서 보이는 강변의 건물들과 늘어선 自然樹林, 그리고 열대여섯개나 되는 교량 측면의 물에 비친 造形 등은 참으로 아름다웠다. 이와 같이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角度에서 새롭게 보이는 都市+自然의 美觀 등을 생각할 때 우리의 現實을 생각하게 된다.

□使命感을 일깨우는 憲章

고층건물에서 내려다 본 건물의 屋上 풍경, 인적이 드문 골목길은 말할 수 없는 불쾌감을 준다. 이제 우리는 모든 사물을 보는 눈이 2차적이고 3차적인데서 4차적이며 多次元的인 角度가 視野에 까지 온 현실을 알아야 한다.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소홀하게 넘길 수 없는 것이다. 특히 건축은 보이지 않는次元보다 보이는次元, 보여주는次元, 보아서 느끼는次元, 보아서 머리속에 오래 기억되는次元에 까지 유도해야할 것이다.

우리는 이제 막중한 責任과 使命感으로 새로운次元에서 오늘을 슬기롭게 개척하고 참다운 建築士像 定立을 위한 憲章의 草案이 하루속히 成案되기를 기대한다.

〈朴商浩〉